반려동물도 극락왕생 가능할까?

日불교계 수년간 다양한 해석 쏟아져

박영빈 객원기자

지난 1월 16일, 일본 인터넷 매체 '닛폰닷컴' 은 일본 불교계에서 최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극락왕생' 을 특별 보도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이 논의는 '반려동물은 사후 극락왕생 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는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 이라는 주제는 포교와도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중요한 문제다. 실제 일본에서는 사망한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나 기도가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신도들이 사찰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논의의 발단은 2016년 9월 교토에서 열린 '정토종 총합학술대회' 였다. 당시 정토종학연구소의 아다치 토시히데(安達俊英) 조교수가 "정토종의 개조인 호넨(法然) 스님은 동물인 채로는 곧바로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아다치 조교수는 "왕생은 칭명염불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정토교의 교리다. 그러나 동물은 축생도에 있는 중생으로 칭명염불이 불가능하기에 사후 곧바로 왕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동물이 극락왕생하기 위해선 다시금 인간의 몸을 받아 염불을 해야 한다는 논지다.

이에 현장에 있던 타이쇼대학 하야시다 코쥰(林田康順) 교수는 "호넨 스님은 동물이 회향(回向)을 통해 곧바로 왕생할 수 있다고 설했다"며 전면 반박했다.

하야시다 교수는 "설사 축생도에 떨어져 죽었다 해도, 살아있는 다른 이가 칭명염불이나 독경 등의 선업을 동물에게 회향하면 그 공덕으로 왕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 정토종 학술대회 발단
타 종파도 영향 미쳐 '화두'
긍정 · 부정 입장 나뉘지만
반려동물 납골당 점차 증가

당시 이 논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여타의 논제들을 제치고 가장 뜨겁게 논의돼 "정토종의 의견이 양분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논의는 정토종 외의 타 종파에도 퍼져나가 다양한 해석과 현행되고 있는 동물 천도재에 대한 고찰이 이뤄졌다.

일본 천태종의 경우 "산천초목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교의에서 일찍이 동물 천도재의 필요성을 주장, 대부분의 사찰에서 천도재를 허용하고 있다.


반려동물 합동천도재를 지내는 간오지. 사진출처=닛폰닷컴

일련종은 동물 천도재, 혹은 사망한 동물들을 위한 법회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가 나오지 않았으나 일련종 개조인 니치렌(日蓮) 스님이 박해받던 자신을 대신해 죽은 개를 위해 기도를 했다는 전승에서 동물 천도재를 허용한다. 또 소의경전인 〈법화경〉의 내용에 따라 축생도에 있는 동물이라도 그대로 성불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사찰 가운데 반려동물의 천도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거나, 전용 납골당을 운영하는 사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쿄시내에 소재한 간오지(感応寺)는 13년 전부터 반려동물을 위한 법회와 납골당을 개시했다. 간오지의 주지 나리타 쥰쿄(成田淳教) 스님은 "연간 사찰에서 접수하는 천도재와 장례법회의 46%가 반려동물을 위한 법회"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불교계에서는 동물의 사후세계와 극락왕생의 여부에 대한 학회와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논의가 시작된 정토종 내부에서는 "아미타불의 본원은 중생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중생들은 그저 본원을 믿을 뿐, 동물의 왕생여부는 아미타불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중립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과 불교 간의 새로운 대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태국 사찰서 총기테러… 스님 2명 사망

이슬람 과격파 소행 추정, 스님들 탁발 중지 · 사찰 대기

지난 1월 18일 오후 태국 최남부의 나라티왓(Narathiwat)주 숭가이 빠이(Sungai Pai)구역의 사찰에서 총기테러 사건이 발생, 비구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이 총상을 입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익일(19일) 특보로 '더 네이션' 'AFP 뉴스' '타일랜드 하이퍼링크' 등의 외신과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총기테러가 일어난 사찰에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태국경찰들. 사진출처=방콕포스트

태국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각지에서 사망자를 동반한 폭력사건과 테러사건이 발생,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해당 사건과 관여된 이들은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취재에 응한 숭가이 빠이 경찰서장은 "해당 사건은 18일 오후 7시 30분(한국시간 오후 9시 30분)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건경위에 대해서는 "랏따나누빱(Rattananupab) 사원은 말레이시아 국경 근처에 소재하고 있다. 당시 검은 옷을 입은 10인 가량의 괴한들이 오토바이에 탄 채 라이플 소총을 들고 침입, 무작위로 발포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2명의 스님이 현장에서 피살됐고, 이 중 한 분은 주지스님인 랏따나라끄 스님이다. 다른 두 스님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히며 태국 치안부대가 사찰에 도착했을 땐 테러범들이 도주한 후였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인근의 4개 지역에선 경찰과 치안부대명의로 각 사찰에 공문을 발송, 19일 오전부터 스님들의 탁발을 중지하고 사찰에 대기해 달라고 공지했다.

사건의 배후로는 이슬람 과격파가 지목되고 있다. 나라티왓 지역을 비롯해 태국 남부 지역은 말레이계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곳으로, 2004년부터 이슬람 무장 세력의 테러사건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7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민간인 희생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찰을 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불교사찰을 노리는 테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캐나다 불자, 포커로 딴 7억 '전액 기부'

2017년에도 상금 전액 기부
포커팬들 '영웅' 별명 부여

포커 선수인 한 불자가 게임을 통해 번 돈을 자선사업에 전액 기부해 화제다.

캐나다 할리팩스 출신의 스캇 웰런바흐(Scott Wellenbach · 67)는 최근 바하마연방(Bahamas)에서 열린 포커대회 '포커스타즈 캐리비안 어드벤처' 에서 3위를 차지, 상금 67만1240달러(한화 약 7억5313만원)를 기부했다고 영국 일간매체 더가디언이 1월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불자 스캇 웰렌바흐는 바하마연방에서 열린 한 포커 대회에서 3위를 차지, 상금을 전액 기부했다. 사진출처=포커뉴스

스캇은 "상대방을 (물질적으로)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포커게임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라며 "나는 어떻게든 현명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한다. 돈이 타인과 동물 등 다른 중생을 위해 좋은 목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포커뉴스닷컴(PokerNews.com)에 밝혔다. 포커게임에서 비롯되는 윤리적 문제를 기부를 통해 해소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 불교 덕분에 이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강조한다. 어린 시절 삶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를 처음 접한 그다. 현재 스캇은 직접 티베트 불교 경전을 연구, 번역하는 불교학자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포커 훈련을 위해서 매일 1시간 이상의 명상에도 임한다고.

스캇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불자로서 불교와 명상을 공짜로 누리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며 게임 성과의 공(功)을 '불교' 에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포커와 불교 교리는 상충된다. 포커를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큰돈을 따면 그것에 쉽게 중독되고 통제력도 잃게 된다"면서 "하지만 불교 공부와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부액은 네팔 및 티베트 불교 단체, 빈곤 해결 구호단체 '옥스팜(Oxfam)' , 국경없는의사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그는 2017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포커대회에서 17위를 차지했을 당시에도 상금 7만2176달러(한화 약 8100만원)를 기부했다. 해당 기금은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현재 '영웅' 이란 별명을 얻고 전 세계 포커 팬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美 '보시함 절도'에 '훼불'까지

캘리포니아 · 뉴욕서 사건사고, '증오범죄' 의혹

미국 캘리포니아 온타리오(Ontario)에 위치한 불교사원에서 '보시함 절도사건' 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약 1000달러(한화 약 113만원)의 보시금을 훔쳐 달아났으나 CCTV에 포착돼 체포됐다.

KTLA에 따르면 다니엘 원(32)은 미국 불교사원에서 1월 15일(현지시간) 현금을 훔쳐 달아난 뒤 18일 체포됐다. CCTV 화면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께 법당에 침입한 뒤 돈을 꺼내 배낭에 담아 달아났다.

KTLA는 "경찰 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벌여 용의자의 혐의를 밝혀냈다. 남성은 체포 직후 웨스트밸리 구치소에 수감됐다"면서 "용의자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그는 23일 검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확실한 혐의 입증을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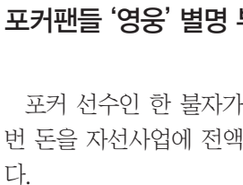
불교사원에서 보시금을 절도 중인 용의자 다니엘 원이 CCTV에 찍힌 모습. 사진출처=KTLA방송 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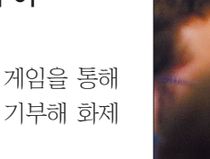
한편 지난 16일에는 뉴욕 퀸즈에서 훼불 사건이 발생해 미국 불교계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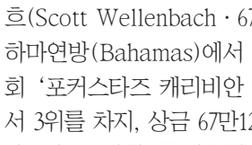
CBS뉴욕에 따르면, 30대 남성 용의자는 이날 퀸즈 플러싱 지구에서 한 중국 불교사원에 무단 침입,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불상을 훼손했다. 해당 남성의 훼불행위는 CCTV에 찍혀 경찰이 수배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종교혐오 사건으로 판단, 증오범죄특별반에서 조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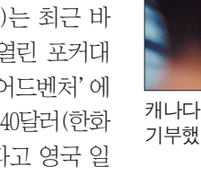
박정현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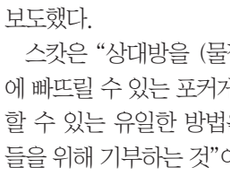
GmSoft since 2015 GM SOFT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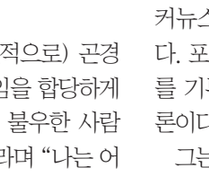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위패 출력


사주팔자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